

전문계 고등학생의 문제행동, 가구수입, 그리고 환경에 대한 지각 변인이 징계경험에 미치는 효과

이 회 정 박 혜 숙* 전 명 남
서울사회복지대학교 호남대학교 열린사이버대학교

본 중단연구에서는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3년 동안의 개인, 가구수입 그리고 환경에 대한 지각 특성에 따른 징계받을 확률을 살펴보았다. 한국교육고용 패널(KEEP) 중학교 3학년 코호트의 2, 3, 및 4차 자료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사용하여 비행에 미치는 관련 변인(성별,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무단결석, 가출, 흡연, 음주, 가구수입)의 상대적인 효과를 살펴보았다. 모든 변인 중 흡연은 전문계 고등학생의 매년 징계 받을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으며, 그 효과크기는 2학년, 3학년, 1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도는 징계경험과 부적 인 관계가 있었으며, 그 효과는 2학년 때, 작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무단결석경험은 징계받을 확률에 가장 큰 효과가 있었으나, 3학년 때만 나타났다. 가출경험 및 흡연은 보통크기의 징계받을 확률과 관련이 있었다. 전문계 고등학생의 비행과 징계관련 지도에 관한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징계, 문제행동, 전문계 고등학교, 로지스틱 회귀모형

산업사회 이후 가정 중심의 교육이 약화되면서 학생들의 탈선이나 비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중,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약 8,000여명 정도에 이르고, 그중 80%는 중도탈락하는 시점에서 비행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인문계 고등학교(인문계고)보다 전문계 고등학교(전문계고: 공업고, 정보산업고 등)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전문계고의 중퇴비율이 인문계고보다 2배 이상 높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부정행위와 같은 교칙 위반 행동과 탈선 및 비행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징계의 종류는 90여종이 되며 물리적인 벌보다는 말로 타이르거나 꾸짖는 등의 정신적인 벌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이상돈, 2001). 징계내용은 대개 훈계,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이며 이것은 뚜렷한 과오를 범한 대상에 대한 징벌이고,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미미하고 현장성 있는 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다양한 벌이 행하여지고 있다.

† 교신저자 : 박혜숙, (506-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59 - 1 번지 호남대학교 교육대학원.
E-mail: parkhyes@honam.ac.kr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의 명확한 규범을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규칙 준수에 대한 모델링 효과와 같은 징계의 긍정적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나, 학교에서의 징계 경험이 오히려 계속적 비행 행위의 촉발 요인이 되거나, 징계로 인한 낙인 경험이 학교생활에서의 부정적 사건으로 인식된다면 이는 추후 더 큰 비행과 범죄의 전조적 계기를 만들 수도 있으므로, 학교차원에서의 공식적 처벌에 해당하는 징계 경험은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계 고등학생의 음주, 흡연과 같은 지위비행과 가정생활에서의 일탈인 가출과 학교생활에서의 문제인 무단결석을 ‘문제행동’으로 정의하고, 가정 및 학교환경을 포함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전문계고 학생들의 비행 변수들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 및 학교생활에 관련된 징계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면 학교 현장에서의 생활지도를 비롯한 교육적 개입이나 사회적 지원체제를 구안해내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 징계경험에 대한 종단적 탐색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고 보다 적절한 징계 대책을 강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의 위기

우리나라 초, 중학교에서는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며, 직업 적성에 대한 이해와 탐색 교육 등이 부족하여 직업진로 교육체제가 구축되지 못해 상급학교를 진학할 때에 자신의 특기, 적성 및 희망보다 학력위주의 진로지도의 제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계고의 경우 학생 기초학력이 부족하고, 생활습관이 불성실하여 교육과정에 흥미를 상실하고 적응력이 부족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인문고와 실업계를 직접 비교한 결과, 전문계 청소년들의 가정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는 인문계 청소년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조은정, 이해경, 2008), 흡연과 음주와 같은 문제행동의 비율도 전문계 고등학생에게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장수환, 이성기, 2008). 실업계 청소년 중 학업중퇴자들의 비율이 2005년 15,145명에 이르며, 이중 재입학, 편입, 복학 등을 통해 복귀한

학생은 57%에 불과하다고 한다(박갑목, 2007).

학교에서의 징계경험과 그 의미

학교에서의 징계란, 학생의 법적 지위, 즉 교육을 받을 지위에 영향을 주는 처벌에 해당되는 것을 뜻하며, 징계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다(조석훈, 199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처분이라는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훈계나 체벌과 같은 사실행위까지 징계의 종류에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적 효과가 따르는 위의 4가지 행위만을 징계로 본다. 이보다는 정도가 약하나, 훈계나 주의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기도 하는데, 학교마다, 또는 국가마다 동일한 위반 행위도 처벌받는 내용과 정도는 다양하다. 예컨대, Hemphill, McMorris, Toubourou, Herrenkohl, Catalano 그리고 Mathers(2007)는 유사한 수준의 학교 위반이라도 미국과 호주에서의 학교에서의 처벌 수준은 다르며, 회복적 사법주의적 시각에서 호주에서는 미국보다 처벌보다는 선도와 교육을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박현선(1998)은 학교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이 교사의 긍정적인 상벌체계나 학교의 안전한 분위기 등이라고 하였다.

학생 징계규정이 각급 학교에서는 선도를 목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그 명칭이 학생 선도규정으로 사용되고 있다(이상돈, 2001). 학교 내의 봉사는 학교 환경미화, 선생님 업무 보조, 교재 교구 정비, 도서 정비 등의 교내 봉사를 의미한다. 사회봉사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환경미화, 교통정리, 불우시설 봉사, 환경봉사, 공익시설 업무지원 등의 봉사를 의미한다.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대안학교의 단기과정 이수, 외부시설이 운영하는 상담 프로그램에 참가, 약물, 흡연,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입학, 행동·정신적인 치료교육 이수, 학생과 부모와의 협동 교육 프로그램 참가 등을 의미한다. 퇴학처분은 학생 및 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하여 타 학교 또는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 기관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가능한 직업을 알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이외에 2일 내지 4일간 훈계와 근신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었다(조석훈, 1996).

학생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는 음주, 흡연이 40.4%, 무단결석 31.3%, 구타, 폭행 25.8%, 무단가출 25.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조석훈, 1996). 즉 미성년자 규범으로서 음주, 흡연, 시민규범으로서 구타, 폭행, 학생 규범으로서 무단결석과 가출이 학생 징계의 주된 사유였다. 실제로 정학과 같은 강도 높은 징계의 효과성을 살펴본 연구들(Raffaele Mendez, 2003; The Civil Rights Project/Advancement Project, 2000)에 의하면 징계는 결코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오히려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몰아내는 것은 그들의 삶의 질을 더 낮추며 미래의 범죄행동과 같은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전문가들은 비행 청소년의 학교에서의 문제행동은 가능하면 학교가 책임을 지고 이들을 처벌하거나 징계하기 보다는 정책적 차원에서 이들의 사법적 재활주의 차원에서 선도에 앞장서기를 권유하고 있다(Taras, Frankowski, McGrath, & Mears, 2003).

문제행동, 기구수입과 환경에 대한 지각과 징계경험의 관계

지위 비행과 징계에 관한 시간적 변화를 설명하는 두 가지 관점은 잠재적 특성 시각과 생애과정 시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잠재적 특성 시각에서는 범죄 특성 혹은 범죄성은 생물학적 요인이나 인성적 요인(Wilson & Herrnstein, 1985) 또는 양육과정의 문제(Gottfredson & Hirschi, 1990)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특성을 가진 개인은 청소년 비행 집단 내에서 구별되는 다른 행동 유형을 가진다고 본다. 그래서 이같은 잠재적 특성 시각을 집단 이질성(population heterogeneity)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Nagin & Paternoster, 1991). 잠재적 특성 시각은 상황보다는 청소년 개인의 기본 성향을 비행 지속의 중요한 인과요인으로 고려하는 입장이다.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성향은 사람마다 차별적이며 또한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대체로 불변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과거에 비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비행과 문제행동을 일으킬 성향이 높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바로 이러한 높은 비행 성향으로 인하여 과거 아동기 시기의 문제행동은 지속적으로 반사회적 행위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Gottfredson과 Hirshi(1990)는 비행 성향과 관련하여 중시하였던 변인이 개인의 자아통제력이었다. 자아통제력의 형성은 10-12세 이전의 어린나이에 형성되며 자아통제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 개인의 행동을 늘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며, 잘못된 문제행동을 했을 때 이를 징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 10-12세 이전에 필요한 수준의 자아통제력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자아통제이론에서는 엄격한 징계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잘못된 행위에 대해 부모가 잘 통제하지 못하고,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잘못된 행위를 인지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고 관대하게 대할 때 통제력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실증 연구를 통하여 지지 받고 있는데, Gibbs와 Giever(1995)는 낮은 자아통제력을 지닌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음주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혔고, Stylianou(2002)도 음주와 흡연 행위는 낮은 자아통제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김제엽, 이효정 그리고 강민지(2007) 역시 서울지역 중3 학생과 고1 학생 54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응집력이 낮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았고,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비행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둘째, 비행은 개인의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 가속화되거나 억제된다고 보는 생애과정(life-course)시각 또는 상황의존론이다.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주요한 사회 환경적 요인은 직장이나 결혼과 같은 생애사건(Sampson & Laub, 1993), 가족 간의 유대의 변화(Thornberry, 1987), 비행 친구들과의 교체(Elliott & Menard, 1996) 등이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비행은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인과적 또는 연속적으로 변화한다고 본다(Nagin & Paternoster, 1991). 생애과정시각 또는 상황의존론은 기본적으로 “문

제행동을 저지른 청소년은 이후의 상황변화를 경험하고 이로 말미암아 앞으로 비행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견해이다. 즉 문제행동 이후의 상황변화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게 되면 그 사람은 징계와 처벌로 자유권의 실추를 경험한다든지, 학습권이나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한당한다든지, 처벌자라는 낙인이 붙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상황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변화가 비행 발전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유순화와 정규석(2003)은 차별적 접촉과 같은 생애과정에서의 사회학습을 통하여 학교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 행동 변량의 46%를 설명할 수 있고, 쉐퍼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 변량의 56%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균(2002)의 청소년 흡연에 관한 연구에서도 사회학습과 관련된 차별적 강화와 차별적 접촉이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따라서 두 가지 입장 모두에서 징계와 같은 생애사건은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까지 학교안에서의 징계나 처벌에 대하여 연구자들의 관심을 적게 받았으나, 몇몇 연구들에서는 학교에서의 처벌이나 징계와 같은 부정적 인생사건이 사회 유대를 변화시켜 비행을 지속시킨다는 연구들도 있다(Farrington, 2009; Agnew, 1992). 정혜원과 박정선(2008)도 청소년이 반복하여 비행을 저지르는데, 징계 경험이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징계경험이 없다’를 1점으로, ‘징계가 5일 미만’이 2점, ‘5일 이상’은 3점으로 계산하여 징계와 학교 부적응, 성적과 출결과의 관련성을 본 김지혜, 김정남, 남정현, 그리고 천성문(2008)의 연구에 따르면, 징계는 학교 부적응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 폭력비행의 경우, 비행 청소년의 장기 결석과 교내 처벌은 재범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재비행에 학교 처벌과 같은 징계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이남희, 이봉건, 2009).

이와같이 학생 징계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일치되지 않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징계와 관련된 변인에 대하여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징계와 관련되는 개인의 문제행동 변인 및 성별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 행동’이란, 흡연과 음주, 기출과 무단결석과 같은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서 빈번하게 인식되는 행위를 말한다. 고전적 청소년 비행연구에서 흡연과 음주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흡연과 음주는 우리 사회의 관대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다는 것(동아일보, 1999)과 흡연과 음주는 다른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과 함께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가 청소년의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원희, 조아미, 2007). Prinstein과 La Greca(2009)는 6년간의 종단 연구 결과, 아동기 우울증은 청소년기 흡연과 관련성이 깊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같은 결과는 니코틴 성분은 긍정적 정서나 정서 조절과 관련되는 신경화학 체계를 억제하여 우울증에 기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Pomerleau & Pomerleau, 1984; Quattrochi, Baird, & Yurgelun-Todd, 2000).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단기 자기회귀종단 연구(Brown, Lewinsohn, Seeley, & Wagner, 1996; Windle & Windle, 2001)에 따르면, 청소년기 흡연과 우울증은 양방향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발달정신병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외현화 증후군은 청소년기의 흡연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Dishion, Capaldi, Spracklen, & Li, 1995). 아동기 우울증에서 흡연에 이르는 중다결과론(multifinality)을 고려해 본다면, 우울한 아동은 외현화 증상을 함께 동반하면서 일탈된 또래와 합류하게 되고(Brendgen, Vitaro, & Bukowski, 2000), 이같은 외현화 증상과 일탈된 또래 합류는 청소년이 흡연을 관련시키는 강력한 요소라고 보고 있다(Dishion, et al., 1995).

흡연에 관하여 개인 내적 요소 즉 성격이나 적대감 등의 사회 정서적 변인을 강조하는 연구들과 상황적 변인을 강조하는 연구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 내적 요소를 강조하는 연구로, Liverpool 종단 연구를 수행한 Milton, Dugdill, Porcellaro 그리고 Springett(2008)은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는 것은 성숙과 성인으로서의 지위를 증명하려는 시도라고 보고하였으며, Lipkus,

Barefoot, Williams 그리고 Siegler(1994)는 아동기의 적대감이 성인기까지의 흡연행위를 예측하는 중요 변인이라고 하였다. 반면, 흡연과 관련하여 상황적 요인을 강조하는 연구로서, Wiesner, Silbereisen 그리고 Weichold(2008)는 14-18세 시기의 남녀 청소년 음주 행동은 비행 친구의 영향이 크다고 보았다. 11-17세 청소년의 음주 남용에 대한 생태학적 환경의 영향을 6,544명의 청소년과 1,663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Ennett, Foshee, Bauman, Hussong, Cai, Reyes, Faris, Hipp 그리고 Durant (2008)에 의하면 음주 남용은 가족, 또래, 학교와 이웃의 영향이 크다고 하였다. Kuntsche와 Kuendig(2006)도 부모가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자녀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자녀의 염려에 대해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 청소년 음주에 보호요소로 기능한다는 것을 검증하여 상황 변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청소년의 문제행동 중 가출과 무단결석과 관련된 연구로서, Tyler와 Bersani(2008)는 청소년의 가출이 학교에서의 징계 및 처벌과 관련되는 변인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고, 여자 청소년이면서 부모의 감독이 부재할수록 비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화련과 김성봉(2008)은 초등학교 때 무단결석을 시작한 비행 청소년이 고등학교 때 무단결석을 시작한 비행청소년과 결석하지 않은 비행 청소년보다 자신의 삶에 대해 불만족하고 스스로 불행하고 일상 생활에 대처하는 에너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초등학교 때 무단결석을 시작한 비행 청소년이 결석하지 않은 비행 청소년보다 자기 자신을 남에게 개방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혼자있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았고(이화련, 김성봉, 2008; Adams, Gullotta, & Clancy, 1985). 즉 초등학교 때 무단결석을 시작한 비행청소년이 이후 시기의 학교생활에서 무단결석한 비행청소년과 결석을 전혀 하지 않은 비행청소년보다 목표를 추구하거나 책임을 완수할 에너지가 부족하고 사회생활을 회피한다고 하였다.

학생 징계는 성별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최수형, 김준호, 2007), 남자 청소년은 경찰 연행(11.8%), 구타, 폭행(29.2%), 금품갈취(12.5%), 음주, 흡연(52.1%)인 반면, 여자 청소년은 유흥업소 출입(13.5%), 불건전

한 이성교제(12.6%), 용의(10.8%),무단가출(36.0%)과 무단결석(33.3%)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자 청소년은 주로 시민 규범 중 넓은 의미의 폭력 행위가 주로 징계의 사유가 되는 반면, 여자 청소년은 미성년자 규범과 학생 규범이 징계의 주된 사유로 되어 있다.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에게 학교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성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남자 청소년은 수업결손이라는 응답이 35.1%인 반면, 여자 청소년은 학급 동료나 선생님으로부터의 낙인이 58.7%에 달하여 남자 청소년은 학생이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서 학생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박탈, 즉 수업정지에 따른 학업 결손의 불이익을 크게 지각하는 반면, 여자 청소년은 수업결손보다는 낙인 효과의 불이익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석훈, 1996).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생 징계와 관련되는 가구 수입과 환경에 대한 지각 변인

본 연구에서는 학생 징계와 관련되는 환경변인으로 한국교육고용패널의 중3패널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었던 가구수입, 가정생활만족도와 학교생활만족도를 사용하였으며, 이에 관한 문헌고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으로 사회계층과 가구수입이 낮을수록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나 비행이 많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는 이론은 긴장이론과 하위문화이론이며, 관계가 없다는 가정을 함축하는 이론은 통제이론, 낙인이론, 비판범죄이론을 들 수 있다(김준호, 노성호, 1989).

이중 낙인이론에서는 개인에 대한 낙인이나, 사회반응의 측면을 중시하는데, 문제행동이나 일탈은 사람이 저지르는 행위의 특성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범인에게 법과 제재를 적용한 결과라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학생 징계와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낙인이론에서는 일반 문제행동을 저지르고 징계를 받는 사람이 사회로부터 일탈자로 낙인되면서 다시 이차적 문제행동이나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서 하층에서 비행을 저지르고 공식당국 즉 학교에서의 제재를 받은 사람의 수

가 많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하층계급의 청소년들이 다른 중상류의 청소년보다 비행이나 문제행동을 더 많이 저지른다는 점을 함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징계자로 낙인되는 과정에서 하층계급의 성원들이 징계자로 낙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논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준호, 노성호, 1989).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사회계층과 관련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의한 경비행을 포함한 연구(김준호, 노성호, 고경임, 최원기, 1990)에서는 가족의 수입과 부모의 직업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청소년 범죄와 같은 공식통계치에서는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비행율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Tittle & Villemez, 1977).

한편 사회유대론(Hirschi, 1969)에 따르면 가족간의 유대나 학교생활에서의 만족도는 문제행동을 방지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비행 발달과정을 잠재적 특성 시각과 생애과정 시각을 비교하면서 미국 390명의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National Youth Survey를 활용하여 두 시각에서의 가족유대의 영향을 비교한 이상문(2007)은 생애과정시각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고하면서, 가족의 유대는 비행을 발달초기에 시작한 집단이나 후기에 시작한 집단 모두에서 비행과정에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실증적으로도 징계와 같은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요인으로 보고 있다(조은정, 이혜경, 2008). 가구수입과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빈곤은 지속적 비행 발달과정에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소득 수준도 비행의 지속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익중, 2009). 저소득 가정의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강압적 훈육과 같은 가족 요인은 비행 행동에 큰 영향을 주는 반면, 저소득 청소년기가 되면, 가족이나 부모 변인보다는 또래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희수, 양혜원, 2007).

한편 아동기에 학대 경험은 청소년기의 비행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특히 자아존중감이 낮은 피학대 아동은 또래 청소년으로부터 소외를 경험하다가 학교에 대한 애착심을 상실하게 되어 비행 경로를 밟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 청소년패널을 활용한 이상균(2008)의 부모 양육행동과 비행 경로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아동기에 비행을 시

작한 집단의 경우, 부모양육행동이 자기통제감을 거쳐 비행 친구와의 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문제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반면, 청소년기에 비행을 시작한 집단의 경우에는 자기통제감과 비행 친구와의 또래 영향이 모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에는 아동기에 비해 또래의 영향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같이 징계경험과 비행과 관련되는 환경 요인은 크게 가족과 또래 또는 학교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가족요인과 관련하여 볼때,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접촉을 하고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가족내 갈등은 다른 외부와의 갈등도 초래하기 때문에 환경변인에 있어서 가족생활 만족도는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고(최희옥, 문재우, 박재산, 2005), 부모 자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와 친구와의 적응도가 높다고 하였다(유성경, 2000). 즉 대화시간이 길수록, 의사소통의 빈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대화를 나눌수록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과 학교규칙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란(2002)은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음주 및 흡연과 부적 상관을 가지며, 학교생활에서의 문제가 많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분위기와 교사와의 애착관계와 같은 학교의 특성이 학교생활 만족도와 결석을 방지하는 주요 특성이라고 보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Wilkins(2008)는 학교 가기 싫어하는 청소년들이라도 Brookfield Park의 대안 학교에서는 수업을 잘 받았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규모가 작지만, 친밀한 공동체를 만들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자치적인 조직과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이 학교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Baker, Dilly, Aupperlee 그리고 Patil(2003)도 긍정 심리학적 측면에서 학교생활 만족도는 건강한 학교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교 분위기의 재고, 교실 구조와 교수방법의 변화, 학교 조직의 변혁과 학생들 스스로의 학교에 대한 애착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비행 경력 과정에 있어서 최수형(2008)은 여자 청소년은 가정 내에서 엄격한 규율을 통하여 훈육하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훈육될 수도 있는데, 이같은 부모의 부

적절한 훈육방식은 여자 청소년이 경비행에서 중비행으로 비행경로를 심화시키는데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학생징계와 관련되는 문제행동과 가구수입 및 환경에 대한 지각 변인 중 한국 교육고용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전문계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징계 경험은 어떠한가, 이에 영향을 주는 문제행동변인과 환경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며, 부가적으로 학생 징계 양상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종단적 패턴을 관련 변인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전문계고 학생들의 징계경험에 있어서 성차에 따른 징계경험 정도 및 징계패턴은 어떠한가?

둘째, 징계경험에 미치는 문제행동변인(음주, 흡연, 가출, 무단결석)과 가구수입 및 환경에 대한 지각 변인(학교생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 문제행동경험, 가구수입)의 상대적 영향력은 매년 어떠한가?

연구방법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교육고용패널의 2차, 3차, 4차년도에 설문에 참여하였던 전문계고 520명(남학생, 265명(51%), 여학생, 240명(46.2%))중 고등학교 3년 동안 징계경험여부에 관한 문항에 응답을 하였던 394명의 학생으로 남학생은 204명(51.8%), 여학생은 190명(48.2%)이다.

변수 및 변수생성

본 연구는 성별, 학교만족도, 가정만족도, 무단결석, 가출여부, 흡연여부, 음주여부, 가구소득을 독립변인으로, 매년 개별적인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사용하여 징계받을 확률에 미치는 각 변인의 상대적인 효과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징계경험은 종속변수로서 이항변수

(dichotomous variable)이며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을 경우 1로 코딩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무단결석경험, 가출경험, 흡연여부, 음주여부로서 이들 변인은 경험이 있을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성별은 남학생은 1로 여학생은 0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가구수입은 해당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구수입이란, 월 평균소득으로 만원 단위이며 연속 변수로 구성되었다.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이자소득세 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일컫는다. 가구수입 변인은 왜도와 첨도가 높아서, 로그변형을 하였다. 자연 로그 변환에서는 가구수입이 0인 경우 결측치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로 코딩한 후 로그변환을 하여 본 모형에 사용하였다. 학교 및 가정생활 만족도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얻어졌다.

모형

종속변인이 징계경험 여부로서 이항변수 (1: 징계경험있음, 0: 징계경험 없음)이기에 독립변수들과의 관계가 비선형이어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자료가 3회에 걸쳐 동일한 학생대상으로 얻어졌기에 매년 해당 변인이 상대적인 징계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만들었다.

$$\text{Log}(P/1-P) = \beta_0 + \beta_1(\text{성별})_{ij} + \beta_2(\text{학교생활만족도})_{ij} + \beta_3(\text{가정생활만족도})_{ij} + \beta_4(\text{무단결석})_{ij} + \beta_5(\text{가출})_{ij} + \beta_6(\text{흡연})_{ij} + \beta_7(\text{음주})_{ij} + \beta_8(\text{ln가구수입})_{ij}$$

주. 성별은 남학생의 효과를 나타낸다.

결 과

연구문제 1

<표1>은 매년 성별에 따른 징계경험과 징계종류이다. 징계경험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전체 평균, 6.7%, 10.7%, 11.5%). 전문계고 학생들의 징계경험은 1학년에서 2학년 때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학년에서 3학년 때는 많은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학년과 3학년의 징계경험의 상관관계는($r=0.44$) 1. 2학년($r=0.35$) 혹은 1, 3학년($r=0.31$) 때보다 더 높았는데, 즉 2학년 때 징계를 받는 경우 3학년 때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다른 해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본다($p<0.01$). 성별에 따른 징계경험 여부는 2학년 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그 경험빈도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시간에 따른 전문계고 학생의 징계 종류의 분포를 살펴보면, '학교내 봉사'가 징계의 종류에서 가장 빈번하였으며 그 다음이 '훈계 및 근신'에 관한 것이었다.(<표1> 참조)

<표2>는 3년 동안의 징계경험여부에 근거하여 1은 징계경험으로, 0은 징계무경험으로 분류하여 8가지의 패턴(1,1,1; 1,1,0; 1,0,1; 1,0,0; 0,0,0; 0,0,1; 0,1,0; 0,1,1)으로 구분하고 해당하는 분포를 살펴보았다. 징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학생들이 징계경험 후에도 다시 징계를 재 경험한 경우는 패턴 A, B, C이며 총31명이었다. 이 중 1학년 때 징계를 받은 경우는(패턴 A, B, C) 17명의 학생이 해당되며, 2학년 때 징계를 경험하고 다시 3학년 때 징계를 경험한 경우(패턴 H)는 14명이 해당된다.

반면에, 징계를 한번이라도 받은 학생이 추후에 징계 받지 않은 경우인 패턴 D와 패턴 G의 경우는 총 24명이었다. 패턴 A,B,C,H 집단(남학생=18, 여학생=13)과 패턴 DG 집단(남학생=16, 여학생 =8)의 성차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은 아니었다($p>0.05$).

연구문제 2

먼저 전문계 남고생과 전문계 여고생의 문제행동의 빈도를 살펴보았다. 하루 흡연량의 빈도는 1개피에서

표 1. 성별과 학년에 따른 징계경험 및 징계종류

학년	변수	비율	표준 편차	비율	표준 편차
		남	204	여	190
고1	징계여부	0.07	0.25	0.07	0.25
	훈계.근신	0.02	0.14	0.02	0.12
	교내봉사	0.05	0.23	0.05	0.21
고2	사회봉사	0.01	0.1	0.01	0.1
	징계여부	0.12	0.33	0.08	0.28
	훈계	0.02	0.14	0.03	0.16
고3	교내봉사	0.09	0.28	0.06	0.23
	사회봉사	0.01	0.12	0.01	0.1
	징계여부	0.13	0.34	0.09	0.29
고3	훈계/근신	0.01	0.12	0.02	0.12
	교내봉사	0.1	0.3	0.07	0.26
	사회봉사	0.01	0.12	0.02	0.12

표 2.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징계경험 패턴

패턴	고1	고2	고3	남	여
A	1	1	1	3	6
B	1	1	0	2	2
C	1	0	1	3	1
D	1	0	0	6	4
E	0	0	0	159	162
F	0	0	1	11	7
G	0	1	0	10	4
H	0	1	1	10	4

주. 1은 징계경험이 있음, 0은 징계경험이 없음을 나타냄.

30개피로, 학년이 높아갈수록 개피수가 조금씩 늘었으나, 하루에 5개피, 10개피를 피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실제 담배를 피는 학생들은 매 학년 각 각 43명, 57명, 61명이었다. 음주량은 그 빈도에 있어서 매 년 1-2회 음주하는 경우가 그 빈도로 가장 높았다. 극소수의 학생만이(2~3명) 거의 매일 마시는 경우에 해당되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음주정도가 아닌 음주여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음주여부에 있어서

표 3. 전문계 고등학생의 성별 및 학년에 따른 흡연, 음주, 가출 및 무단결석의 빈도

성별	학년	변수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남	고1	흡연량	27	1	24	7.89	5.89
		음주	204	1	6	2.01	1.12
		가출	9	1	30	7.33	9.00
		무단결석	17	1	10	3.18	3.05
	고2	흡연량	44	1	20	10.14	5.92
		음주	204	1	5	2.23	1.18
		가출	6	3	40	14.50	16.26
	고3	무단결석	33	1	50	7.73	10.30
		흡연량	48	1	30	10.13	6.37
		음주	204	1	6	2.49	1.22
		가출	2	1	2	1.50	0.71
			무단결석	36	1	50	9.22
여	고1	흡연량	16	2	20	6.88	4.73
		음주	190	1	6	2.14	1.17
		가출	9	2	80	24.89	25.10
		무단결석	14	1	67	7.21	17.35
	고2	흡연량	13	2	20	8.46	6.58
		음주	190	1	5	2.1	1.04
		가출	8	2	30	8.63	10.58
	고3	무단결석	28	1	70	7.54	13.25
		흡연량	13	3	12	7.15	2.94
		음주	190	1	6	2.23	1.14
		가출	8	7	270	60.13	88.02
			무단결석	41	1	70	9.66

주) 음주는 0은 전혀 마시지 않음 1:1~2회/년, 2: 1~2회/달, 3: 1~2회/주, 4: 3~4회/주, 5: 매일, 흡연량의 단위는 개피임, 5개피(12명), 10개피(12명).

표 4. 고1 징계경험에 미치는 여러 변인의 효과

변수명	B	S.E.	Wald	Sig.	Exp	BIC (B)
상수	-3.49	2.33	2.25	0.13	0.03	-3.72
성별	0.12	0.55	0.05	0.83	1.13	-5.93
학교만족	-0.21	0.28	0.54	0.46	0.81	-5.44
가정만족	0.12	0.31	0.15	0.70	1.13	-5.82
무단결석	1.15	0.67	2.95	0.09	3.15	-3.02
가출여부	0.63	0.94	0.45	0.50	1.88	-5.52
흡연여부	1.69	0.66	6.59	0.01	5.41	0.61
음주여부	-0.06	0.63	0.01	0.92	0.94	-5.97
가구수입	0.04	0.38	0.01	0.91	1.04	-5.96

주. * 월평균가계수입의 단위는 만원, 본 자료에서는 왜도 및 첨도 값이 커서 로그 변환을 하였다.

표 5. 고2 징계경험에 미치는 여러 변인의 효과

변수	B	S.E.	Wald	Sig.	Exp	BIC (B)
상수	-5.21	2.33	4.97	0.03	0.01	-1.00
성별	-0.32	0.53	0.37	0.54	0.73	-5.61
학교만족	-0.65	0.25	6.61	0.01	0.52	0.63
가정만족	0.25	0.24	1.10	0.29	1.28	-4.88
무단결석	0.81	0.58	1.94	0.16	2.26	-4.04
가출여부	1.91	0.89	4.56	0.03	6.72	-1.42
흡연여부	2.27	0.57	15.91	0.00	9.66	9.94
음주여부	1.20	0.79	2.31	0.13	3.30	-3.67
가구수입	0.43	0.39	1.22	0.27	1.54	-4.76

표 6. 고3 징계경험에 미치는 여러 변인의 효과

변수	B	S.E.	Wald	Sig.	exp	BIC (B)
상수	-4.67	2.10	4.93	0.03	0.01	-1.05
성별	0.41	0.48	0.72	0.40	1.51	-5.26
학교만족	-0.21	0.23	0.81	0.37	0.81	-5.17
가정만족	0.14	0.24	0.37	0.54	1.16	-5.60
무단결석	1.99	0.46	19.01	0.00	7.33	13.03
가출여부	3.42	1.06	10.51	0.00	30.61	4.53
흡연여부	1.71	0.50	11.85	0.00	5.50	5.87
음주여부	0.05	0.56	0.01	0.93	1.05	-5.97
가구수입	0.20	0.32	0.40	0.53	1.22	-5.58

빈도는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흡연여부에 있어서는 전문계 2학년 및 3학년 생의 경우, 성차가 나타났고, 전문계 남고생이 여고생에 비해 더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흡연비율은 3년 동안 매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흡연비율이 높았다. 가출의 빈도는 1~90일까지이나, 가출학생은 매년 24명(1학년), 14명(2학년), 11명(3학년)이었기에 모형에서는 가출유무에 관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가출경험여부는 여학생이 3학년 때에만 남학생의 경우보다 유의하게 통계적으로 높았다($p < 0.05$). 성별, 학교생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무단결석, 가출경험, 흡연 및 음주 경험여부가 징계경험에 미치는 것은 각각 달랐다.

성별, 가구수입, 음주여부는 통계적으로 실제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학년의 경우, 흡연경험이 징계받을 확률에 미치는 효과는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4 참조>). 그러나 로지스틱 회귀계수의 효과크기는 BIC의 크기가 0이상 2미만일 경우, 작은 효과크기, 2이상에서 6미만일 경우, 보통의 효과크기, 6이상에서 10미만일 경우, 큰 효과크기, 그리고 BIC 지수가 10이상일 경우에는 매우 큰 효과크기로 간주할 때(홍세희, 2005), 흡연경험의 효과크기는 작았다(<표5 참조>). 그러나 흡연안한 학생에 비하여 징계를 받을 승산은 5.4배였다.

2학년 때의 경우, 세 변인 즉 흡연여부, 학교만족도, 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특히 흡연경험이 징계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높았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징계경험에 부적관계가 있었다(<표6참조>).

3학년 때의 경우, 가출여부, 흡연여부, 무단결석이 징계받을 확률과 정적관계가 있었으며 나열순서대로 그 효과가 컸다. 3학년 때의 모형에서는 가출여부와 흡연여부는 보통크기의 효과가 있었으며, 무단결석이 징계받을 확률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컸다. 무단결석을 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징계를 받을 승산은 7.33배였다(<표7 참조>).

논 의

본 연구는 전문계 고등학생의 3년 동안의 징계 경험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성별, 개인의 문제행동과 가구수입 및 환경에 대한 지각 변인이 전문계 고등학생의 징계 경험에 미치는 각각의 상대적인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징계 경험의 양상을 매년 개인특성 및 환경 변인을 사용하여 경험에 미치는 각 변인의 상대적인 효과와 징계 경험의 패턴까지를 살펴봄으로써 연속적으로 징계를 받거나, 징계경험이 중단 되는 집단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이후 보다 심각한 청소년 비행과 범죄에 대한 고위험 집단에 대한 선도대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계 남녀 고교생의 징계 경험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학생들의 징계

종류에 있어서 ‘학교 내 봉사’, ‘훈계 및 근신’ ‘사회봉사’의 순으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과 음주빈도와 비율에 있어서의 분포는 우울불안과 공격성의 효과를 성차와 함께 살펴본 신현숙, 이경성, 이해경 그리고 신경수(2004)의 연구 및 이해은과 최정아(2008)의 연구와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흡연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 2.3학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에 있어서는 3학년 때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출 경험이 더 많았다.

둘째, 비행에 미치는 문제행동(무단결석, 가출, 흡연, 음주)변인, 가구수입과 환경에 대한 지각 변인(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의 상대적인 효과 중, 흡연은 매년 전문계 고등학생의 징계 받을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2학년 전문계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에 덜 만족할수록 징계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생활만족도는 징계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흡연은 전 학년에서 모두 징계확률과 관련되었으며, 가출경험과 무단결석 경험 역시 3학년 시기의 징계경험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다른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성차, 가구수입, 음주경험의 효과는 징계경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가구수입이 징계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결과는 민수홍(2005)의 결과와는 일치하나, 가구수입과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다는 민수홍(2006)의 연구와는 상치되는 결과이다. 또한 박선희(2007)의 청소년의 흡연 경험에 대한 연구와 배정이(2009)의 청소년 물질남용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가정 환경 변인과 월평균 용돈액수는 흡연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가구수입 이외에 월평균 용돈액수나 가정과 관련된 관계적 특성에 대한 규명도 후속연구에서 필요할 것으로 본다.

첫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징계경험에서 성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계 고등학생의 징계경험은 1학년에서 2학년때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학년에서 3학년때는 많은 변화가 없었다. 2학년과 3학년 때가 다른 경우보다 높은 상관계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는 2학년때 급격히 증가한 징계횟수가 3학년에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징계를 경험했던 학생들의 패턴을 분석한 <표 2>에

서의 분포를 감안해 볼 때, 1학년 때부터 2번 이상 징계를 받은 학생은 31명인 반면, 징계를 받았던 학생이 추후에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은 24명이었으므로, 1,2학년 때 징계를 일단 받으면 그 이후 변화가 쉽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년별 징계경험을 차이에 대한 결과를 논의함에 있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징계경험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징계경험의 시간적 변화를 직접 연구한 결과는 없으므로, 청소년 비행의 변화추이를 연구한 이경상(2007)의 종단연구에서 밝혀진 유형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이경상(2007)은 비행 유형을 악화형, 완화형, 정체형, 병합형, 무비행으로 분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징계 유형이 악화형(패턴 F), 완화형(패턴 B, D), 정체형(패턴 A), 병합형(패턴 C, G), 무징계(패턴 E)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계속적 징계를 받게 되는 패턴 A과 같은 경우, 본 연구에서 조사한 문제행동에 해당하는 문제행동 뿐 아니라 징계를 받는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폭력비행과 같은 중비행으로의 전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학교에서의 공식적 처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기관 예컨대 경찰서에 법적 문제로 입건되는 것과 같은 문제의 심화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집중 관리를 통한 위험요소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며, 완화형의 경우, 추후 질적 연구를 통하여 보호요소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흡연은 3시기 모두에서 징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흡연은 학교적응을 어렵게 한다는 김영미(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므로, 학교에서의 징계 위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특히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 무단결석 역시 징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밝혀졌는데, 김혜래와 이혜원(2007)의 연구에서 역시 무단결석은 지위 비행과 관련될 뿐 아니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갖고 있다고 하므로, 무단결석을 하는 학생들도 하여금 징계와 같은 처벌 뿐 아니라, 진로 성숙도 증진 프로그램을 부과하여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 의지를 높여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흡연과 같은 문제행동의 경우 성인에게는 허용이 되면서, 이들에 대한 강

압적 징계는 오히려 해당 청소년의 반감을 불러 일으켜 더욱 나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Simonsen, Sugal 그리고 Negron(2008)이 제안하듯이, 문제행동에 대한 엄벌주의 정책보다는 긍정적 행동에 대한 강화를 촉진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징계 경험의 분포에 있어서 '학교 내 봉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 내 봉사는 주로 학교 환경 미화작업, 교사 업무 보조, 교재, 교구 정비,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가 주를 이루고 있다(이명진, 2008). 이같은 학교내 봉사가 결석을 자주하면서 기출 경험이 있고 흡연을 일삼는 학생들에게 어떤 교정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따라서 이영만(2001)의 제안대로 징계의 종류에 '경고'를 신설하고 '학교내 봉사'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는 모두 '특별교육'으로 통합하고 '특별 교육'에 학생과 학부모와의 협의를 통한 상담과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패턴 분석의 사례수가 많지 않아 추후 연구를 통하여 확인될 필요성이 있긴 하나, 고1에 징계를 받은 후 계속적으로 징계를 받은 집단과 한번 징계를 받았으나, 이후 징계를 받지 않았던 집단을 비교하여 징계를 받았으나,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력을 발휘하여 문제행동을 단절할 수 있게 한 보호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은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자료가 아니기에 자료분석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특히 학업성취도에 관한 정보는 사용할 수가 없었고, 개인특성 변인들이 연속변수로 얻어진 경우가 드물기에 좀 더 의미있는 연구를 할 수 없는 점이 있었다. 또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첫째, 데이터 특성상 가출시작 연령이나 가출빈도, 음주량이나 흡연량은 모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인 효과를 파악하지 못했다. 둘째, 징계의 종류에 있어서 선행연구에서 많이 언급되는 정확이나 퇴학(Arcia, & Miami-Dade County Public Schools, 2007; Raffaele Mendez, 2003)보다는 전문계 고등학교에 한정된 경미한 수준의 학교내 봉사가 많이 포함된 징계여부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였으므로, 징계를 받은

학생의 가족관계, 징계과정에서 느낀 감정이나 낙인효과, 이로 인한 자존감의 문제 등에 대한 영향은 파악은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하였다. 셋째, 동일학생으로부터 3년에 걸쳐 얻어진 자료를 사용하였지만, 평균 징계경험에 있어서 개인차와 시간에 따른 징계경험의 변화에 대한 변량이 크지 못함으로 인하여 징계경험 변화율에 미치는 여러 개인 및 학교환경특성의 효과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비록 교육고용패널 자료가 전국의 전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표성을 가진 표본이지만, 3년간의 특정문항에 응답한 동일 학생을 선정하였기에, 한번이라도 징계여부에 응답하지 못한 경우,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또한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에 대하여 두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전문계고의 학생들 중 월평균소득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분석에 포함되었고, 이런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전문계 고등학생 전체에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부적응의 범주 안에 학교생활에서의 규칙의 위반인 학생 징계를 주변적으로 다루거나, 부정적 사건으로 치부하여 학생 징계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낙인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는 징계경험(강세현, 1995)을 중점적으로 전문계 고등학교 3년 시기의 문제행동 변인과 환경변인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징계경험의 패턴과 징계 경험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밝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추후 좀 더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징계 패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종단연구를 통하여 징계 경험의 위험요소와 보호요소를 밝힌다면, 학교생활의 부적응과 규칙 위반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지도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더욱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세현(1995). 청소년 비행의 '비공식적' 통제의 낙인의 효과: 가정, 학교, 사법 기관에서의 통제 경험의 관계. *한국사회학*, 29(1), 147-170.
- 김영미(2007). 청소년 음주와 흡연에 대한 가족구조와 사회통제적 요인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3(6), 151-178.
- 김재엽, 이효정, 강민지(2007). 가족응집력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4(6), 173-201.
- 김준호, 노성호(1989). 사회계층과 청소년비행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 *형사정책*, 4, 197-237.
- 김준호, 노성호(1993). 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노성호, 고경임, 최원기(1990).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공부압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혜, 김정남, 남정현, 천성문(2008). 고등학생의 학교 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논총*, 7(1), 39-56.
- 김혜래, 이혜원(2007). 학교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비행과의 관계. *한국이등복지학*, 23, 33-63.
- 김희수, 양혜원(2007). 저소득 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대한 환경적 요인의 영향구조 비교. *청소년학연구*, 14(1), 155-188.
- 동아일보(1999). 10대 흡연을 세계 최고 불명예. 1999.11.27일자.
- 민수홍(2005).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로서의 청소년비행과 학교에서의 징계경험. *청소년학연구*, 12(2), 1-25.
- 민수홍(2006).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패널자료를 이용한 인과성 및 일반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13(6), 27-47.
- 박갑목(2007).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 *동아논총*, 43, 133-165.
- 박선희(2007). 청소년들의 흡연 경험 및 흡연 빈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3(3), 318-328.
- 박현선(1998). 빈곤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배정미(2009). 청소년 물질남용의 구조모형. *대한간호학회지*, 39(3), 446-457.
- 신현숙, 이경성, 이해경, 신경수(2004). 비행 청소년의 생활적응문제에서 우울/불안 및 공격성의 합병 효과.

- 과와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91-510.
- 유성경(2000). 청소년 탈 비행 위험요소와 보호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연구, 38(3), 81-106.
- 유순화, 정규석(2003). 청소년 음주, 흡연에 관한 사회 학습이론적 분석. 청소년학 연구, 10(2), 195-214.
- 이경상(2007).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남희, 이봉건(2009). 비행청소년의 범죄유형에 따른 재범위험성차이에 관한 연구: 비행촉발요인 조사서와 PAI검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 성격, 23(2), 127-140.
- 이명진(2008). 고등학교 학생포상 및 징계규정 분석.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상균(2002). 청소년 흡연행위의 결정요인. 사회복지리뷰, 6, 77-94.
- 이상균(2008).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조기, 후기 비행 진입 청소년의 비행 경로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24, 249-282.
- 이상돈(2001). 학생징계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상문(2007). 비행 발달과정에 관한 두가지 관점의 비교 연구: 잠재적 특성 시각과 생애과정 시각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8(3), 1129-1158.
- 이영만(2001). 학생징계 및 재입학제도 개선연구. 교육마당21, 236, 61-63.
- 이영란(2002). 비행청소년의 음주,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형사정책, 14(1), 105-148.
- 이원희, 조아미(2007). 청소년 집단간 규범적 비행(흡연과 음주),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의 차이. 청소년복지연구, 9(1), 17-37.
- 이화련, 김성봉(2008). MMPI-A 검사를 통한 비행청소년의 비행 행동에 따른 성격특성 연구. 학생생활연구, 29(1), 221-240.
- 이혜은, 최정아(2008).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개인요인 검증. 청소년학연구, 15(1), 197-221.
- 장수환, 이성기(2008). 청소년의 비행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정책, 32(1), 219-241.
- 정익중(2009). 빈곤과 비행 발달체적의 역동적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30(3), 113-125.
- 정익중, 박현선, 구인회(2006). 비행대 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한국사회복지학, 58(3), 223-244.
- 정혜원, 박정선(2008). 부정적 인생사건이 비행시작 및 재비행에 미치는 영향: 미시적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9(2), 273-308.
- 조석훈(1996). 학생징계의 특성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은정, 이해경(2008). 청소년패널연구의 위험행동요인, 학교요인, 가족요인에 따른 학교생활부적응. 청소년학연구, 14(4), 59-80.
- 최수형(2008). 비행경력과정에서 나타난 부모의 폭력적 훈육 효과: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9(1), 215-241.
- 최수형, 김준호(2007). 비행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지속적 비행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성 차이에 대한 연구.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학술대회자료집, 251-281.
- 최희옥, 문재우, 박계산(2005). 가족내 갈등과 학교 부적응간의 관련성 분석. 보건과 사회과학, 17, 79-106.
- 홍세희(2005).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 Adams, G. R., Gullotta, T., & Clancy, M. A. (1985). Homeless adolescents: A descriptive study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runaway and throwaways. *Adolescence*, 20(79), 715-724.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47-87.
- Arcia, E., & Miami-Dade County Public Schools (2007). Variability in schools' suspension rates of black students. *The Journal of Negro Education*, 76(4), 597-608.
- Baker, J. A., Dilly, L. J., Aupperlee, J. L., & Patil, S. A. (2003). The developmental context of school

- satisfaction: Schools as psychologically healthy environment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8(2), 206-221.
- Brendgen, M., Vitaro, F., & Bukowski, W. M. (2000). Deviant friends and early adolescents' emotional and behavioral adjustmen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0, 173-189.
- Brown, R. A., Lewinsohn, P. M., Seeley, J. R., & Wagner, E. F. (1996). Cigarette smoking, major depressive symptoms, and other psychiatric disorder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 1602-1610.
- Dishion, T. J., Capaldi, D., Spracklen, K. M., & Li, F. (1995). Peer ecology of male adolescent drug us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4), 803-824.
- Elliott, D. S., & Menard, S. (1996). Delinquent friends and delinquent behavior: Temporal and developmental patterns. In D. Hawkins (Eds.), *Delinquency and crime: Current theorie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nnett, T., Foshee, A., Bauman, E., Hussong, A., Cai, L., Reyes, M., Farris, R., Hipp, J., & Durant, R. (2008). The social ecology of adolescent alcohol misuse. *Child Development*, 79(6), 1777-1791.
- Farrington, D. P. (2009). Childhood risk factors for young adult offending: Onset and persistence. In F. Losel, A. E. Bottoms, & D. P. Farrington. (Eds.), *Young Adult Offenders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ullompton, Devon: Willan, in press.
- Gibbs, J. J., & Giever, D. (1995). Self-control and its manifestations among university students: An empirical test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Justice Quarterly*, 12, 231-255.
- Gottfredson, M.,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emphill, S., McMorris, B., Toumbourou, J., Herrenkohl, T., Catalano, R., & Mathers, M. (2007). Rates of student-reported antisocial behavior, school suspensions, and arrests in Victoria, Australia and Washington Stat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School Health*, 77(6), 303-336.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untsche, E. N., & Kuending, H. (2006). What is worse? A hierarchy of family-related risk factors predicting alcohol use in adolescence. *Substance Use & Misuse*, 41, 71-86.
- Lipkus, L. M., Barefoot, J. C., Williams, R. B., & Siegler, I. C. (1994). Personality measures as predictors of smoking initiation and cessation in the UNC Alumni Heart Study. *Health Psychology*, 13, 149-155.
- Milton, S., Dugdill, L., Porcellaro, A., & Springett, J. (2008). Kids who smoke think that they can be adults as well: Children's smoking and transitions to adulthood. *Children & Society*, 22(4), 291-302.
- Nagin, D. S., & Paternoster, R. (1991). On the relationship of past and future participation in delinquency. *Criminology*, 29, 163-189.
- Pomerleau, O. F., & Pomerleau, C. S. (1984). Neuroregulators and the reinforcement of smoking: Towards a biobehavioral explanation. *Neuroscience and Biobehavioral Reviews*, 18, 503-513.
- Prinstein, M.J., & La Greca, A. M. (2009). Childhood depressive symptoms and adolescent cigarette use: A six-year longitudinal study controlling for peer relations correlates. *Health Psychology*, 28(3), 283-291.
- Quattrocki, E., Baird, A., Yurgelun-Todd, D. (2000). Biological aspects of the link between smoking and depressive symptoms. *Harvard Review of*

- Psychiatry*, 8, 99-110.
- Raffaele Mendez, L. M. (2003). Predictors of suspension and negative school outcome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New Directions for Youth Development*, 99, 17-33.
- Sampson, R. J., & Laub, J. H. (1993). *Crime in the making: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imonsen, B., Sugal, G., & Negron, M. (2008). 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s: Primary systems and practices.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40(6), 32-40.
- Stylianou, S.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s and manifestations of low self-control in a general theory of crime: Two comments and a test. *Deviant Behavior*, 23, 31-57.
- Taras, H., Frankowski, B., McGrath, J., & Mears, C. (2003). Out-of-school suspension and expulsion. *Pediatrics*, 112(5), 1206.
- The Civil Rights Project/Advancement Project (2000). *Opportunities suspended: The devastating consequences of zero tolerance and school discipline. Proceedings of a National Summit on Zero Tolerance*. Cambridge, MA: Harvard Civil Rights Project.
- Thornberry, T. P. (1987). Toward an interaction theory of delinquency. *Criminology*, 32, 247-275.
- Tittle, C., & Villemez, W. (1977). Social class and criminality. *Social Forces*, 56, 474-502.
- Tyler, A., & Bersani, B. (2008). A longitudinal study of early adolescent precursors to running awa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8(2), 230-251.
- Wiesner, M., Silbereisen, K., & Weichold, K. (2008). Effects of deviant peer association on adolescent alcohol consumption: A growth mixture modeling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 (5), 537-551.
- Wilkins, J. (2008). School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student attendance: Experiences of students in a school avoidance program. *The High School Journal*, 91(3), 12-24.
- Wilson, J., & Herrnstein, R. (1985). *Crime and human nature*. New York: Simon & Schuster.
- Windle, M., & Windle, R. C. (2001). Depressive symptoms and cigarette smoking among middle adolescents: Prospective associations and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influenc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9, 215-226.

Effects of Individual Problem Behaviors, Family Income, and Perceptions of Environment on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Disciplinary

Hee-jung Lee

Hye-Sook Park

Myong-Nam Jun

Seoul Social Welfare Graduate University

Honam University

Open Cyber University

This longitudinal study investigated Korean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experiencing disciplinary punishment over three years, incorporating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their perceptions of environment. We used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Study data (KEEPS: middle school 3rd-grade cohort's 2nd through 4th year data) and logit regression models. We investigated the relative effect of such variables as gender, school and home life satisfaction, status delinquencies (i.e., truancy, running-away, smoking, drinking alcohols) and home economic condition on the probability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experiencing disciplinary punishment. Among the covariates, smoking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experiencing disciplinary punishment at each time point, and its effect was largest during the sophomore year which was followed by that of 3rd and 1st year respectively. In the case of the 2nd year, the log-odds of experiencing punishment was lower with the students who were satisfied with their school life than those who were not. The effect of truancy was the largest among the variables in the model, but its effects appeared only during the 3rd year.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3rd year, runaway, smoking were also associated moderately with the log-odds of experiencing punishment. Future directions for guidance related to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deviant behaviors and disciplinary punishment were discussed.

Keywords : disciplinary punishment, status delinquency, satisfaction with school, home, logit regression models

1차원고 접수일 : 2009년 4월 10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9년 11월 25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11월 27일